



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1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5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방 승인을 향한 진전 강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5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연방 승인을 향한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부모와 보호자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코로나19로부터 최고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끈기 있게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승인되면 저는 부모님과 보호자들이 여름 방학 동안 어린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 소아과 의사들에게 연락하기를 권합니다.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방어책이며,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 대비 노력의 일환으로 이 도구를 뉴욕 시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미국 식품의약청 자문위원회는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계류 중인 모더나(Moderna) 및 화이자/바이온텍(Pfizer/BioNTech)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승인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 식품의약청은 질병통제센터와 CDC 국장인 Rochelle Walensky 박사의 권고에 따라 백신의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CDC 국장이 백신 사용을 추천하면 뉴욕주 보건부는 안내서 초안을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미 5세 미만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의 백신 제공업체들은 이미 39,000회 투여에 대한 예비 주문을 마쳤습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주 전역에 걸쳐 제공업체들이 추가 투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여름에 시작될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포괄적인 주정부별 유료 미디어 캠페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